

금호타이어 휴무에 기아차도 검토...광주 중추사업장 휘청

코로나19로 북미 수출시장 침체 탓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2차 휴무 예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휴무에 들어간 데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도 1주일 동안 가동중단을 검토 중이다.

지역 중추 제조사업장의 잇따른 휴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따른 재고조정과 공정의 효율성 제고, 설비 점검을 위해 휴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차가 준중형 SUV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 2라인의 가동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중단했고,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 역시 가동 중단이 장기화 하고 있다.

전체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휴무에 따른 재고조정과 공정의 효율성 제고, 설비 점검을 위해 휴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차가 준중형 SUV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 2라인의 가동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중단했고,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 역시 가동 중단이 장기화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현대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미지역 현지 판매자들이 영업을 하

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공장 휴무를 결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에도 8~9일 이틀 동안 국내 3개 공장을 대상으로 휴업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 광주지역 중추 사업장 가운데 한곳인 기아차 광주공장도 휴무를 검토 중이다.

기아차는 해외 수요부진을 이유로 수출차 양산을 전담하는 광주2공장을 포함해 경기도 광명 소하공장과 소하2공장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노사가 협의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수출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와 쏘울을 양산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침체를 겪으면서 수출수

요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생산대수는 2000여대이며, 이 가운데 2공장에서 900여대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휴무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요 제조 사업장의 휴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앞친 데 뒤틀린 격으로 주요 제조업체들의 가동중단마저 진행되면 지역경제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봉우 기자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천억 '역대 최대'

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 15.6만 '금융위기급 증가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9천억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으며,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

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한다.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늘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

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많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천375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5만3천명(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04년 5월(2만7천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강아라 기자

소비자원, 안전한 해외구매 위한 가이드 배포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구매 시 선호하는 9개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외 쇼핑물을 통한 직접 해결 방법,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불만 접수 및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9개 품목은 △의류·신발 △IT·가전 △항공권 △숙박 △식품·의약품 △생활화학 제품 △화장품 △서비스(재판매 티켓·액티비티 입장권·렌터카·애플리케이션) △배출대행 서비스 등이다. 가이드는 소비자의 국제거래 역



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활용을 위한 리플릿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를 하기 전에 동 소비자 가이드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재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눈물의 폐업' 돕는다...중기부, 점포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을 기존 규모보다 8200개 늘어난 1만9200개 점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 164억원

이 추가됨에 따라 폐업점포 지원 규모가 1만9200개로 늘었다. 점포 철거비 사업으로 1만200개,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으로 900개 폐업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을 통해 늘어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에 지원이 집중된다. 대구시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8200개 점포에 164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폐업대상 점포 현장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신청방식도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으로 다양화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신속·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꽃 출시 40일만에 10만 송이 판매

'고객·화훼농가 모두 만족'...계절별에 맞는 꽃 추가 출시 예정



마켓컬리가 지난 2월 말 출시한 '농부의 꽃' 상품이 판매 40일 만에 10만 송이 넘게 팔렸다고 13일 밝혔다.

프리지아(흰색, 노란색, 보라색)와 튜립(분홍색, 노란색, 다홍색,

보라색, 사베트 튜립)을 전달 밤 수확해 주문 당일 풀필드체인으로 새벽배송한다.

다 핀 꽃이 아닌 덜 핀 꽃을 판매해 더 긴 시간 생화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또 산지와 직접 거래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꽃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색도 좋고 향도 좋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란색 프리지아다. 관련 상품의 후기도 2000건이 넘었다.

화훼 생산 농가의 만족도도 높

다. 코로나19로 졸업, 입학 등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막혔던 판로가 마켓컬리 입점을 통해 해소됐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마켓컬리는 이달 플래쉬 포인트 튜립, 로얄버진 튜립, 핑크 리버스타 튜립 등 3종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튜립과 프리지아 외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으로 적절한 가격에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기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봉우 기자

중소벤처단체들 "착한 소비자운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

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소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11: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3일 서울 강남구 팀스타운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단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선결제 운동 '착한 소비자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팀스타운S1 회의실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개인 또

는 법인 차원에서 평소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하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이 자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기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민간 차원의 착한소비자 운동 확산 노력을 격려

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계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 선뜻 나서 주시는 것은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은 언제나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 우리나라에는 외상거래 문화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 극복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이번 선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더 많은 기관·단체로 확대,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 중소벤처기업 단체장들은 실제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선결제를 실천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미경 회장이 직접 협회 임직원 등의 식대를 선결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기로 했다.